주요국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방식 변화와 시사점

미래전략개발부 정책금융팀
이기은 선임연구원(keithlee@kdb.co.kr)
박조은 선임연구원(parkchoeun@kdb.co.kr)
김새롬 전임연구원(romitheworld@kdb.co.kr)

Ⅰ. 정책금융 변화 배경
Ⅱ. 주요국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방식 변화
Ⅲ.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첨단전략산업 관련 장기·대규모 자금 수요 및 스케일업 자금 부족 등으로 정책금융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신용도 중심의 대출방식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성장단계 및 위험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이다. 아울러, 기존의 정책금융 방식이 민간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본고는 주요 6개국 정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공급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은 대출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면서 지분·펀드·메자닌·벤처대출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둘째,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자본을 유도하고 후속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따라 수익·위험 구조를 달리하거나 공공과 민간의 수익배분을 차등화하여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셋째, 성장단계별로 발생하는 자금공백을 해소하고 단계별 지원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후속투자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화에 장기간이 필요한 딥테크 분야에 장기 펀드 조성 등으로 인내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도 확대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재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경로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플랫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효과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영구적 인내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Ⅰ. 정책금융 변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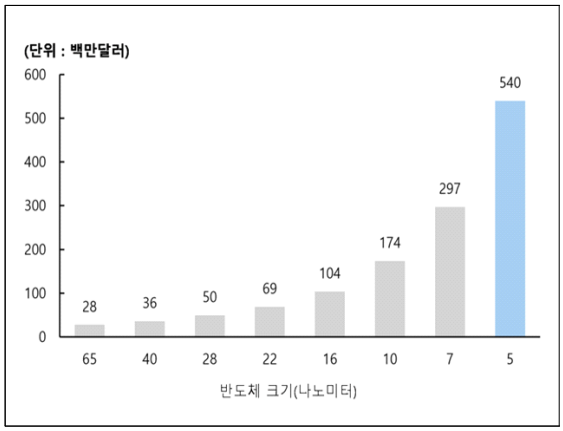
1. 정책금융 수요의 구조적 변화

❑ **반도체 등의 첨단전략산업은 막대한 초기자본이 요구되는 장치 및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장기·대규모 선제적 자본 투입 필요**

○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생산기지 등 핵심 첨단전략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및 차세대 기술 R&D에 대규모 자금 투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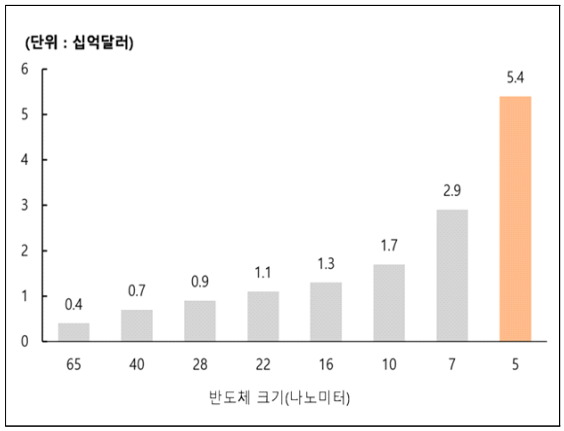
○ 특히, 반도체의 경우 기술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규모 급증
- 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47년까지 10개 팹 구축에 총 622조원 소요

〈그림 1〉 반도체 크기에 따른 연구개발비용



자료 : McKinsey(2020)

〈그림 2〉 반도체 크기에 따른 팹건설 비용



자료 : McKinsey(2020)

❑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창업자금보다 스케일업 자금 부족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생산설비 구축, 전문인력 확충, 해외 인증, 마케팅 및 후속 R&D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므로 투자금액 급증

○ 스케일업 단계 자금공급 역량은 미국·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자금조달 격차가 큰 편으로 주요국에서 스케일업 투자 관련 이슈 제기[1)]

〈표 1〉 **OECD의 국가별 스케일업 투자수준 평가**

(단위 : 점, 달러)

순위	국가	표준화점수[주1]	국민 1인당 스케일업 투자액[주2]
1	미국	100	319.6
	이스라엘	100	626.9
3	아이슬란드	91.2	(미제공[주3])
4	캐나다	56.6	75.3
5	스웨덴	50.4	46.6
6	덴마크	49.3	41.5
7	핀란드	49.0	40.2
8	에스토니아	47.8	34.5
9	오스트리아	47.6	33.8
10	영국	47.5	32.9
14	**한국**	**40.9**	**(미제공[주3])**

주 1 : 국민 1인당 스케일업 투자액을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 0~100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2 : 2020-2023 자료의 이동평균 기준
3 : OECD 기준에 맞는 통계자료가 없어 통계적 보정을 바탕으로 표준화점수 산출한 경우
자료 : OECD(2026)

2. 전통적 자금공급 방식의 한계

❑ 담보·신용도 중심의 전통적 대출방식은 현재의 상환능력보다 미래의 성장가치가 중요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

○ 기존의 기업금융은 과거 재무실적, 신용등급, 부동산·설비 등 유형자산의 담보가치 등을 중심으로 상환가능성을 평가

- 기술개발과 시장확대에 앞서 대규모·장기자금이 필요한 첨단기술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2)] 존재

1) OECD(2025)에 따르면 스케일업 단계에서 미국·이스라엘과 다른 국가간 격차가 초기단계 VC보다 더 크다고 평가

2) EIB(2026c)는 이러한 특성이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등 첨단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

○ 기술경쟁력, 상용화 가능성, 시장성, 경영진 역량,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금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수요 증가

❑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성장단계와 위험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자금지원 필요성이 증대

○ 첨단기술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자금 수요와 위험 특성이 달라,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대출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한계[3)]
- 초기에는 사업 불확실성이 높고 제한적인 수익 창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며, 성장·스케일업 단계에서는 대규모 장기자금 수요가 확대

○ 정책금융 역할에 대한 요구도 은행대출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에서 기업의 성장단계와 위험특성에 적합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

❑ 정책금융기관의 단독 대출·투자 확대만으로는 증가하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자금 수요 대응에 한계

○ 첨단전략산업 투자는 대규모·장기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위험이 높은 편으로 동일한 자금 공급액이라도 더 많은 위험부담을 수반하므로 자본·재정부담 가중

○ 또한, 한정된 정책금융 재원이 대형 첨단전략산업 프로젝트에 장기간 투입될 경우 초기기업 등 다른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할 재원 축소 가능성

❑ 정책금융의 직접 공급 중심 운영은 민간금융 위축 및 구축효과 발생 우려

○ 민간금융이 공급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직접 취급하면 민간의 심사·투자역량을 저해하거나 기존 민간자본을 대체하는 구축효과 발생 가능[4)]

3) IMF(2024)는 첨단 스타트업의 제한적인 유형담보, 미래가치 평가의 어려움과 장기간의 제품개발·스케일업 및 수익창출 기간 등이 은행대출의 만기·원리금 상환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

4) World Bank(2025)는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자본을 유도함으로써 민간금융의 구축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

Ⅱ. 주요국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방식 변화

1.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

❑ 대규모 인프라 중심의 장기대출에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금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금융수단 다변화

○ 대규모 인프라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R&D·첨단기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원영역 확대

- '90년대 후반부터 R&D 등 연구개발 분야로 금융지원을 넓히고, 중소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지원 강화
- 최근에는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청정기술, 우주, 방산 등 EU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지원대상 확대

○ 장기대출을 기반으로 벤처대출(Venture Debt)[5], 메자닌, 펀드 출자와 보증 등을 병행하여 금융수단 확대

- EU와 R&D·혁신사업의 신용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 및 성장위험 분담

❑ EIB와 EIF[6]의 역할을 연계하여 개별 사업·성장단계 중심의 지원에서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전주기 금융지원 기관으로 발전

○ EIF는 초기단계, EIB는 성장 이후 단계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금융을 공급

- EIF는 기술이전·창업 및 초기 성장단계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VC·PE펀드 출자와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촉진
- EIB는 성장·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벤처대출을 공급하고, 대규모 설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등을 통해 산업화 단계까지 지원

---

5) EIB가 첨단기술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지분연계형 대출로, 워런트 확보 등 지분연계 조건이 결합되어 기업가치 상승에 따라 수익 공유 가능

6) European Investment Fund, '94년 설립된 EIB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전문 자회사로, 벤처펀드 출자와 대출보증 등 간접금융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자본 유도

○ EIB와 EIF의 금융수단을 연계하는 전주기 금융지원 플랫폼인 TechEU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와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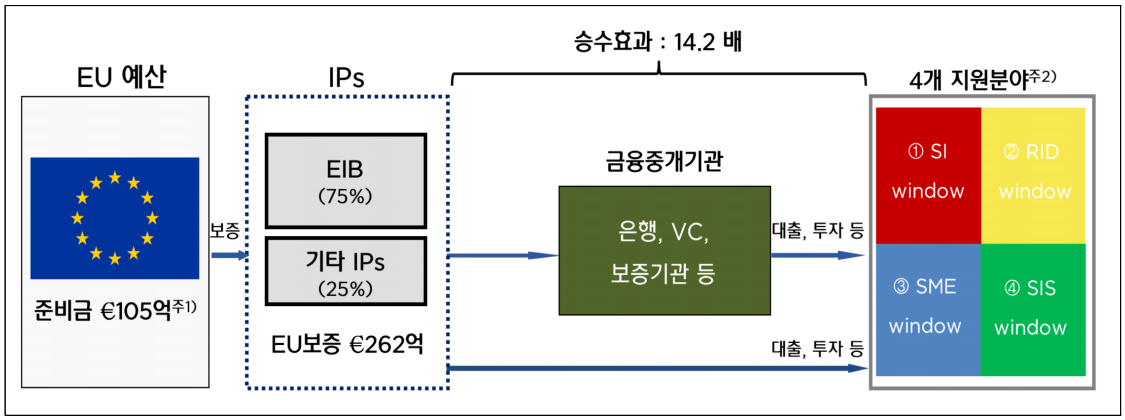
- TechEU는 '아이디어에서 IPO까지' 기업의 성장경로에 필요한 금융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로 운영

❑ 직접 공급뿐만 아니라 InvestEU·ETCI 등을 통해 위험분담 및 민간자본과의 공동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금융기관·기관투자자의 추가 자금공급을 유도

○ EU 예산보증 기반 투자지원 프로그램인 InvestEU[7]는 실행파트너(IPs[8])의 위험부담 여력을 높여 민간투자 유도

- EU 보증을 통해 EIB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사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 확대
- EIB 등은 기업에 직접 대출하거나 투자하고, 금융중개기관에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여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그림 3〉 InvestEU Fund(보증) 구조



주1 : EU예산 105억유로(다년 예산)는 보증 대지급 이행을 위한 준비금 등
2 : ❶SI(지속가능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 ❷RID(리서치·혁신·디지털화, Research, innovation and digitisation), ❸SME(중소기업 지원), ❹SIS(사회적 투자·기술, Social investment and Skills)
자료 : EIB(2026b)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재구성

7) '14년 도입된 EFSI와 13개 EU 금융프로그램을 단일 투자체계로 통합하여 '21년 신설된 금융프로그램으로, ❶InvestEU Fund(보증), ❷InvestEU Advisory Hub(기술자문), ❸InvestEU Portal(프로젝트 정보·투자자 데이터베이스)로 구성

8) Implementing Partners, EIB 및 각 회원국의 대표 정책금융기관 포함(프랑스 CDC, 스페인 ICO 등)

○ ETCI[9]를 통해 EIB가 앵커투자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 LP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기금 및 보험사 등 장기자금 유입 확대

- ETCI 1.0은 EIB 등 공공재원을 메가 VC·PE펀드에 출자하여 민간 LP의 후속 출자를 유도하는 재간접펀드(FoF, Fund-of-Funds) 구조
- '26년에는 ETCI 2.0 출범을 통해 지원대상을 중형펀드까지 확대하고 모펀드 출자 기반을 민간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총동원 자금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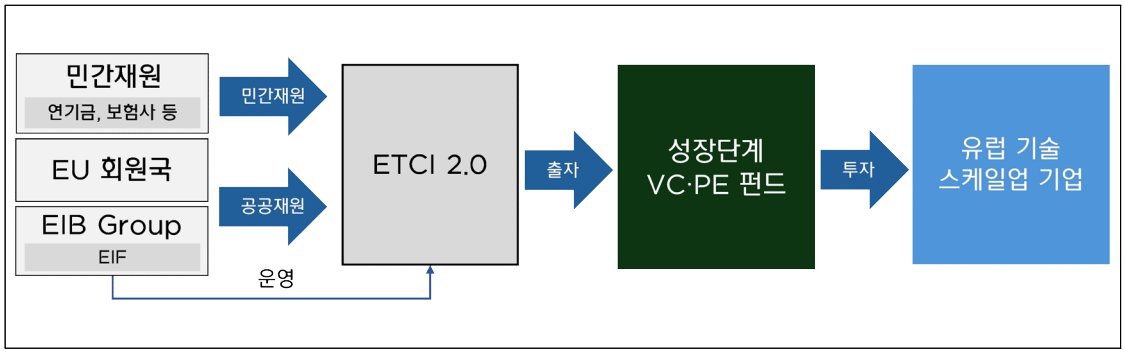
〈표 2〉 **ETCI 1.0과 ETCI 2.0비교**

(단위: 억유로)

구분	출범시기	지원펀드 수	지원기업수	앵커 자금	총동원 자금
1.0	'23년	메가펀드 15개	200개 이상	39	200
2.0	'26년	중형·메가펀드 포함 100개	1,500개 이상	150~200	800

자료 : EIF 홈페이지

〈그림 4〉 **ETCI 2.0 지원체계**



자료 : EIB(2026c)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재구성

9) European Tech Champions Initiative, 기술 스케일업 기업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유럽의 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23년에 출범한 프로그램

2. 독일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기존 온렌딩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구조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자본의 VC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Market Builder 역할 강화

○ KfW는 온렌딩과 VC펀드 출자를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민간자본 없이는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 수요 대응에 한계

○ 정부와 KfW Capital(KfW의 벤처투자 전문 자회사)은 공공 앵커투자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장기자금이 VC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22년 독일성장펀드[10] 출범시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자별 위험선호에 맞는 투자구조[11]를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장기자금이 VC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설계
- '24년에는 WIN Initiative[12]를 시행하여 재간접펀드 확대, 투자여건 개선[13] 등 조치를 통해 민간 장기자본이 VC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표 3〉 **독일의 주요 민간자본 유치 프로그램**

(단위: 억유로)

구 분	주요 내용	민간자본 유치 메커니즘	지원규모
독일성장펀드 (Wachstumsfonds Deutschland)	▸'22년 설립, 공공 앵커투자를 기반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VC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공공 앵커투자 → 위험·수익 구조 차등화 → 기관투자자 참여	10
WIN Initiative	▸'24.9월 출범, 정부·KfW·민간(금융·기업) 참여를 통해 VC 투자 제도 및 여건을 개선	▸민간 장기투자 참여+투자여건 개선→ 성장자본 유입 확대	120

주 : 독일성장펀드는 투자구조를 통한 기관자금 유치, WIN Initiative는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의 시장 유입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

자료 : KfW(2024, 2025b)

10) 재원의 약 70%를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 '25년 말까지 42개 VC펀드에 약 8.5억유로를 출자한 데 이어 '26년 후속펀드인 독일성장기금Ⅱ 자금모집에 착수

11) 투자구조를 ❶MV(Master Vehikel, 정부재정 및 일반투자자)와 ❷SAV(Special Account Vehikel, 위험성향별 구분)으로 구성. SAV는 A-Tranche(보수적 투자자, 고정수익)와 B-Tranche(공격적 투자자, 후순위·고수익)로 나누어 수익배분 구조를 차등화

12) Wachstums- und Innovationskapital für Deutschland Initiative, 정부·KfW와 민간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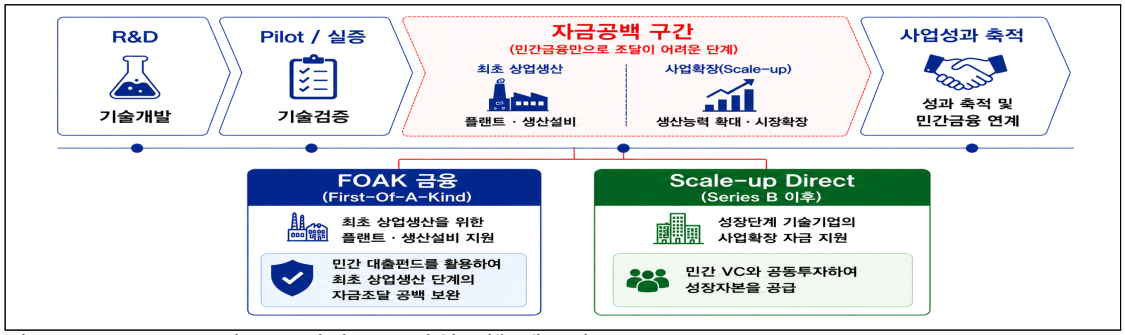
13) 보험사·연기금 등의 위험자본 투자한도를 상향(35%→40%)하고, VC펀드 지분의 중도거래가 가능한 세컨더리시장 구축을 검토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회수 여건을 개선

❑ 첨단기술기업의 상용화·스케일업 자금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공급 방식을 다변화하고, 장기 펀드를 통해 인내자본 공급을 강화

○ KfW Capital은 VC펀드 출자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최초 상업생산과 대규모 사업확장 단계에서는 자금조달 사각지대가 존재
- 특히, 첨단기술 분야는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 투자재원 확보에도 한계

○ 이에 첨단기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상용화 단계에서는 민간 펀드를 통해 대출하고, 사업확장 단계에서는 민간 VC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공급 확대
- FOAK[14]은 최대 3억유로의 정부재정을 민간 대출펀드에 출자하고 추가 민간 자본을 모집하여, 최초 상업생산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대출 형태로 공급 예정
- 사업확장 단계에서는 Scale-up Direct[15]를 통해 민간 VC와 공동으로 성장기업에 투자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유로를 공급하고 '26년 상반기 2,500만유로를 약정

〈그림 5〉 상용화·스케일업 단계의 자금공백과 금융지원



자료 : KfW(2025c)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재구성

○ 개발기간이 긴 딥테크[16] 등에 장기 펀드를 활용하여 인내자본 공급을 강화
- 대표적으로 DTCF(DeepTech & Climate Fonds)[17]는 최소 25년의 운용기간을 두고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성장단계 기업에 투자

14) First-Of-A-Kind, '25.12월 도입. KfW Capital이 민간 운용사와 대출펀드 조성 협의 중
15) '25.12월 도입한 공동투자 프로그램으로 '30년까지 총 10억 유로 공급 예정. 첫 투자인 독일 드론 기업(Quantum Systems)을 시작으로 독일 우주발사체 기업(Isar Aerospace) 등에 투자
16) Deep Tech, 과학·공학 기반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사업화 위험이 높은 분야를 의미
17) '23년 독일 정부가 미래기금과 ERP특별기금 재원(10억유로 규모)으로 조성한 공공 투자펀드로, KfW Capital이 정부를 대신해 수탁 출자하고 DTCF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딥테크·기후테크 기업에 직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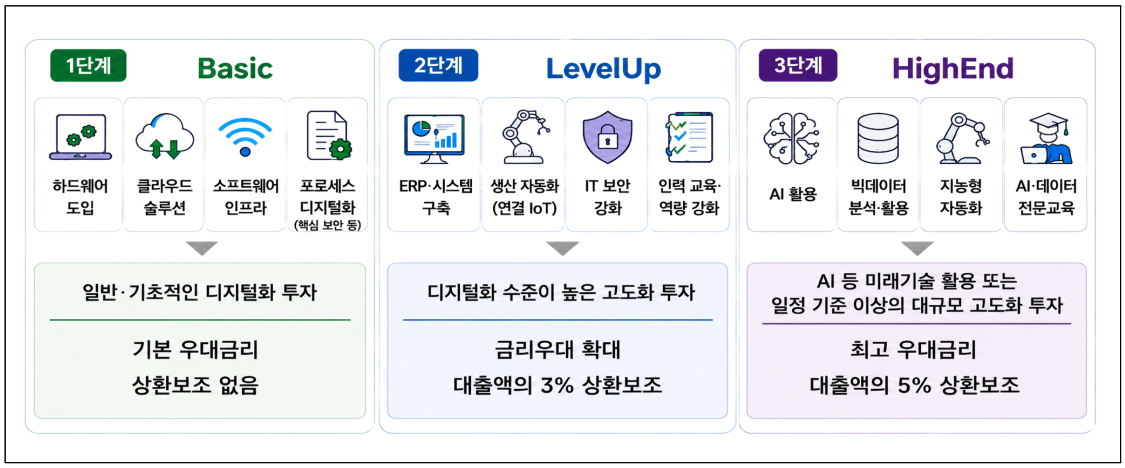
❑ 디지털화·혁신 등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기술 수준에 따라 금융조건을 차등하는 전략적 자금배분 강화

○ KfW는 전통적으로 간접적인 금융지원 방식을 활용하면서 중개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선정 등을 일임하고 일률적인 조건으로 자금공급

○ 최근에는 정책목표 달성 수준을 금융조건에 반영하기 위해 투자내용과 기술 수준에 따라 금융혜택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개편

- '25.7월 ERP[18]디지털·혁신 대출을 Basic - LevelUp - HighEnd 3단계로 구분하여, 기초적인 디지털화부터 공정 자동화, AI 등 미래기술 활용까지 단계별로 지원
- 단계가 높아질수록 금리혜택을 확대하고 LevelUp 3%, HighEnd 5%의 상환보조를 추가하여, 기업의 고도화된 디지털·혁신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

〈그림 6〉 ERP 디지털화·혁신 금융의 단계별 지원체계



주 : 상환보조금은 지원요건 충족 시 대출원금의 일정 비율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방식
자료 : KfW(2026b)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재구성

18) European Recovery Program: 독일의 전후복구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정책금융 재원

3. 프랑스공공투자은행(Bpifrance,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France)

❑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보완하는 전통적 정책금융에서 전략산업을 선도 지원하는 산업정책 집행기관으로 역할 확장

❍ Bpifrance는 SME 및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France 2030[19] 시행 이후 산업정책의 주요 집행기관으로 부상

- 설립초기에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창업·벤처시장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France 2030의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정부가 설정한 전략산업 육성방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표 4〉 **Bpifrance 관련 France 2030 세부프로그램**

(단위 : 억유로)

구 분	주요내용	지원수단	지원규모
Programme 424 (전략적 투자 자금지원)	▸ 반도체, 에너지, 헬스케어 등 전략산업 관련 R&D, 실증, 산업화 프로그램 지원	▸ 보조금, 성공불융자[주], 지분투자	208.4
Programme 425 (혁신생태계 금융지원)	▸ 혁신생태계 지원	▸ 보조금, 대출, 지분투자	60

주 : 사업이 실패할 경우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회수하는 정책지원 수단
자료 : 프랑스 예산국(2024a, b), 프랑스 국민의회(2025)

❍ France 2030 위탁사업外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자금공급 진행

- '23년에는 5년간 350억유로를 투입하여 ❶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거점 조성, ❷신산업 스타트업의 공장 건설 및 스케일업 등을 지원하는 계획 발표
- '25년에는 '30년까지 100억유로를 AI,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전략기술과 경제주권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19) 프랑스 정부가 '21.10월 발표한 대규모 국가 전략투자계획으로, 혁신기술을 활용해 핵심 산업을 전환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보조금·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고도화

○ 지원단계별로 후속자금이 연결되지 않는 '지원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Bpifrance는 다양한 기관을 하나의 그룹 안에 결합하여 '13년 출범

- OSEO[20]의 혁신·대출·보증 기능, CDC Entreprises[21]의 간접투자 기능, FSI[22]의 직접투자 기능을 통합하면서 '원스톱 숍 구조' 형성
- 동 구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위험도 변화에 따라 보조금, 대출·보증, 투자 등을 순차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연결 가능

○ '19년에는 약 26.5억유로 규모 Plan Deeptech 출범[23]을 통해 딥테크 기업 관련 정책금융 지원의 시작점을 기업에서 연구실로 확장

- 대학·연구소 등 원천기술 발굴단계부터 보조금과 메자닌 등을 혼합하여 지원하고 스케일업 필요시 대규모 성장펀드(Large Venture[24] 등)와 연결하여 직접투자 등 지원

〈표 5〉 **Plan Deeptech 관련 지원 세부내역**

(단위 : 억유로)

내 용	지원금액
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생태계 조성(보조금, 메자닌)	5.5
연구실 창업기업 지원(보조금, 성공불융자, 메자닌 등)	8.0
딥테크 VC펀드 출자(민간운용)	10.0
Bpifrance 직접투자	3.0
합 계	**26.5**

자료 : Bpifrance(2019)

20) '05년 설립되어 '13년 Bpifrance에 통합된 프랑스의 중소기업·혁신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
21) '02년 설립된 프랑스예금공탁공고의 자회사로 벤처캐피탈 등 간접투자 담당
22) Fonds stratégique d'investissement,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창설된 전략적 투자펀드로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전략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 '전략적 주주' 역할 수행
23) 딥테크 기업은 기술위험이 높고 개발기간이 길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금융만으로는 연구성과가 사업화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지원 프로그램
24) Bpifrance가 고성장 기술기업의 대규모 후속투자를 위해 운용하는 25억유로 규모의 직접투자 플랫폼

○ ’22년에는 23억유로(정부재정) 규모 Plan Startups et PME industrielles[25]를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산업화 단계까지 확장

-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 양산단계에서 지원절벽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조금→대출→직·간접투자를 하나의 산업화 경로로 연결

〈표 6〉 **Plan Startups et PME industrielles 관련 지원 세부내역**

(단위 : 억유로)

구 분	지원방식	지원대상	지원금액
Première Usine	▸ 보조금, 성공불융자	▸ 최초 공장 ▸ 상업용 실증설비 등	5.5
Deeptech 지원 강화	▸ 보조금 등	▸ 산업화 가능한 딥테크 스타트업	2.75
Prêt Nouvelle Industrie	▸ 장기대출	▸ 실증설비, 파일럿 공장	1.5
SPI2	▸ 직접투자(지분·메자닌)	▸ 사전 산업화에서 최초 공장·양산전환	10
FNVI	▸ 모태펀드 출자	▸ 제조 벤처펀드 육성 등	3.5
합 계			**23.25**

자료 : 프랑스 예산국(2022)

❑ 자체재원과 함께 제3자 자금운용[26](자산운용사 역할) 및 앵커투자를 통해 개인자금 등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투자 플랫폼으로 역할 변화

○ Bpifrance 자체 자본여력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해외자금을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 강화

- 프랑스 기관투자자들의 벤처·성장자본 투자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pifrance의 자금력과 운용역량을 바탕으로 펀드 조성 및 운용하여 기관투자자 자금 유도
-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공동투자 관계 형성[27](파트너십 약정 규모 : 약 23억유로)

25) France2030의 일환으로 집행하는 산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양산 및 공장 설립 지원계획

26) 기관투자자・대기업 등의 자금을 위탁받아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Bpifrance는 재정 및 자체재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역할 수행

27) Mubadala, Qatar Investment Authority,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한국투자공사 등 해외 주요 국부펀드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Bpifrance도 국부펀드로서의 역할 수행

❍ 2026~2030전략에서 제3자 자금운용을 산업정책의 핵심 실행수단으로 정의하고 '30년까지 운용규모를 250억유로까지 확대할 계획(발표시점[28] 180억유로)

❍ 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앞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Bpifrance Entreprises 시리즈 등 펀드 출시

- '20년부터 세컨더리 재간접펀드 운용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Bpifrance의 기존 사모펀드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3년에는 신규 투자 펀드도 출시

〈표 7〉 **Bpifrance의 개인투자자 자금 모집 펀드 내역**

(단위 : 억유로)

펀드명	출시시기	투자구조	모집금액
Bpifrance Entreprises 1	'20.10월	▸ 세컨더리 재간접펀드 - Bpifrance가 2005~2016년 출자한 기존 펀드 지분 인수	0.95
Bpifrance Entreprises 2	'22.2월	▸ 세컨더리 재간접펀드 - 기존 파트너 펀드 80%, Bpifrance 직접 운용 펀드 20% 인수	1.0
Bpifrance Entreprises Avenir 1	'23.4월	▸ 프라이머리 재간접펀드 - Bpifrance의 FFI-VI[주1]와 동일 조건으로 신규 민간 펀드에 공동 출자	0.5
Bpifrance Entreprises 3	'24.9월	▸ 혼합형 재간접펀드 - 기존 펀드 지분 인수 80%, 신규 펀드 출자 20%	1.2
Bpifrance Défense (방위산업 특화)	'25.10월	▸ 프라이머리 직·간접투자 혼합 - 기업 공동투자, Bpifrance 운용펀드 및 외부 전문펀드 출자	1.5[주2]
합 계			**5.15**

주1 : Fonds France Investissement VI, 민간 VC·PE에 출자하여 프랑스 비상장기업에 자기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22년에 조성된 재간접펀드

2 : Bpifrance 자금 3억유로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 자금 1.5억유로 유도

자료 : Bpifrance(2020, 2022b, 2023, 2024, 2025)

28) 2025년 10월 1일

4. 영국기업은행(BBB, British Business Bank)

❑ 설립 초기 중소기업 대출시장 보완 중심에서 BPC(British Patient Capital) 설립 등 전략적 인내자본 공급자로 역할 확대

❍ 중소기업 대출시장 위주[29]로 지원하였던 BBB는 혁신기업의 성장단계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자회사 BPC를 설립하고 25억파운드 투자재원 마련
- BPC는 주로 영국내 민간 VC·성장자본 펀드의 간접투자자(LP)로서 참여하여 VC생태계 내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 수행

❍ '25년에는 영국정부가 발표한 산업전략 지원을 BBB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40억파운드 규모의 전략산업 성장자본 공급계획(ISGC[30]) 발표
- 「Five-year Strategic Plan('25.11월)」에서는 4대 전략목표 중 하나로 '8대 전략산업[31] 유망기업이 영국 내 성장·잔류하도록 지원'을 설정
- BBB는 ISGC 추진을 통해 '29.6월까지 VC·상장펀드 출자 및 민간투자자와의 공동투자 형태로 8대 전략산업에 40억파운드를 공급

〈표 8〉 BBB의 4대 전략목표('25년 발표)

순 번	전략목표
1	8대 전략산업 유망기업이 영국내 성장(scale)·잔류(stay)하도록 지원
2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기능 개선
3	지역과 다양한 기업가의 잠재력 발현
4	기관투자자 자금의 대규모 동원

자료 : BBB(2025a)

29) 설립 초기 BBB는 위축된 중소기업 대출공급 회복 및 대형은행 중심이었던 금융공급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주로 대출시장 지원

30) Industrial Strategy Growth Capital Initiative

31) 영국정부가 경제성장 및 혁신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10월 발표한 Invest 2035에서 선정된 8대 산업(첨단 제조업, 디지털 및 기술, 생명과학 등)

❑ 간접대출·투자 위주의 도매형 공공금융 모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전략적 금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공동투자 확대

❍ 기존에는 '도매형 공공금융[32]'에 의존하였으나, 최근에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기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공동투자 확대

❍ '21년 출시된 「Future Fund:Breakthrough[33]」는 BBB가 기존의 간접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성장기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라운드에 BPC가 직접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후기 R&D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직접·공동투자 모델

❍ '26년 BGP(British Growth Partnership)[34] 시행으로 민간투자자가 주도하는 딜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투자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구축

❑ 영국의 스케일업 자금공백을 해소하고 공공투자의 신호효과를 통한 민간자본 유도를 위해 Pari-passu 방식[35] 확대

❍ BBB의 추가 위험 부담이 도덕적 해이 및 민간투자 구축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36]에 따라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수익·위험구조 도입
- 초기기업 투자 등 시장실패가 큰 부분에서는 BBB가 보증 등으로 추가 위험을 부담하여 민간자본 유입 가능성 제고
- 상업성이 검증된 스케일업 투자 등에서는 BBB가 민간과 동일한 수익·위험 조건으로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금 기반 확대

---

32) 대출 부문에서는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보증·자금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고, 투자 부문에서는 민간 VC·PE 등에 LP로 출자하는 정책금융 방식

33) 영국의 혁신기업들이 성장단계에서 겪게 되는 Equity finance gap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재정 4.25억파운드를 바탕으로 성장단계의 R&D집약적 기업에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직접 지분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❶양자 컴퓨팅, ❷반도체, ❸기후테크, ❹생명과학 등 장래 영국경제에 중요한 산업분야에 자금공급

34) 영국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Scale-up gap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형태로 마련된 펀드로, BBB가 GP이자 앵커투자자로서 투자 프로세스를 주도하며 민간투자자는 LP로서 참여

35) 정책금융기관이 위험부담 및 수익배분 등에서 민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방식

36) BBB(2020)는 Future Fund:Breakthrough 펀드 설계와 관련하여 왜곡된 인센티브는 민간자본을 대체하고 민간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

○ 또한, Pari-passu 방식은 상업성이 확인된 스케일업 등에 투자시 BBB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앵커투자자로 참여한다는 긍정적 신호 제공

〈표 9〉 **BBB 지분투자 주요 프로그램별 수익배분방법**

(단위 : 억유로)

프로그램명	운용시기	개요	투자방법	수익배분방법
Enterprise Capital Funds	'14	▸ 초기·고성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VC 육성	▸ 민간 VC펀드에 출자	▸ 비대칭 수익구조주
Patient Capital Funds (BPC 운용)	'18	▸ 스케일업의 장기 성장 자본 부족 해소	▸ 민간 VC펀드에 출자	▸ 최소 Pari-passu
Future Fund: Breakthrough	'21	▸ R&D집약적 딥테크·바이오 스케일업의 자금공백 보완	▸ 민간투자자와 공동투자	▸ 민간투자자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
British Growth Partnership	'26	▸ 영국 기관투자자의 스케일업 투자 확대	▸ GP이자 앵커투자자로 참여	▸ fully commercial basis

주 : 공공투자자가 민간투자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수취하는 구조
자료 : BBB(2021, 2025e, 2025f, 2026a)

5. 캐나다사업개발은행(BDC,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 BDC는 정부재정을 민간 운용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의 VCCI를 관리·집행하여 민간자본의 VC시장 유입을 뒷받침

○ 캐나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여 VC시장의 정부지원 의존도[37]를 낮추기 위해 VCCI[38]를 도입

- BDC가 정부를 대신해 민간 운용 펀드에 출자하고, 운용사는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자본을 추가 모집하여 VC시장에 투자

37) 캐나다 ISED(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혁신과학경제개발부, 2017)는 VCCI 도입 당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VC시장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

38) Venture Capital Catalyst Initiative, 정부재정을 민간 운용 펀드에 출자하여 추가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벤처투자 프로그램

○ VCCI를 통한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에게 정부보다 유리한 수익배분 조건을 제공

- 초기 VCCI는 민간 투자자에게 IRR+7%의 우선 수익을 배분하였으며, 이후 후속 프로그램에서는 민간 우선 수익률은 IRR+5%로 축소
- 민간자본 유도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시장의 성숙정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

〈표 10〉 **VCCI 프로그램 주요내용**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출시	규모[주]	주요내용
VCCI	'17	3.7	▸ 캐나다 VC생태계 확충을 위한 초기 프로그램 민간 7% → 정부 3% 순으로 우선수익 배분(IRR 기준)
Renewed VCCI	'21	4.5	▸ 기존 VCCI의 후속 프로그램 민간 5% → 정부 3% 순으로 우선수익 배분(IRR 기준)
Growth VCCI	'25	10	▸ 성장단계 기업 지원 및 기관투자자의 VC시장 참여 확대 민간자본 유도를 위한 수익배분 구조 설계 중(`26년)

주 : 정부의 재정출자금 기준
자료 : ISED(2017, 2022,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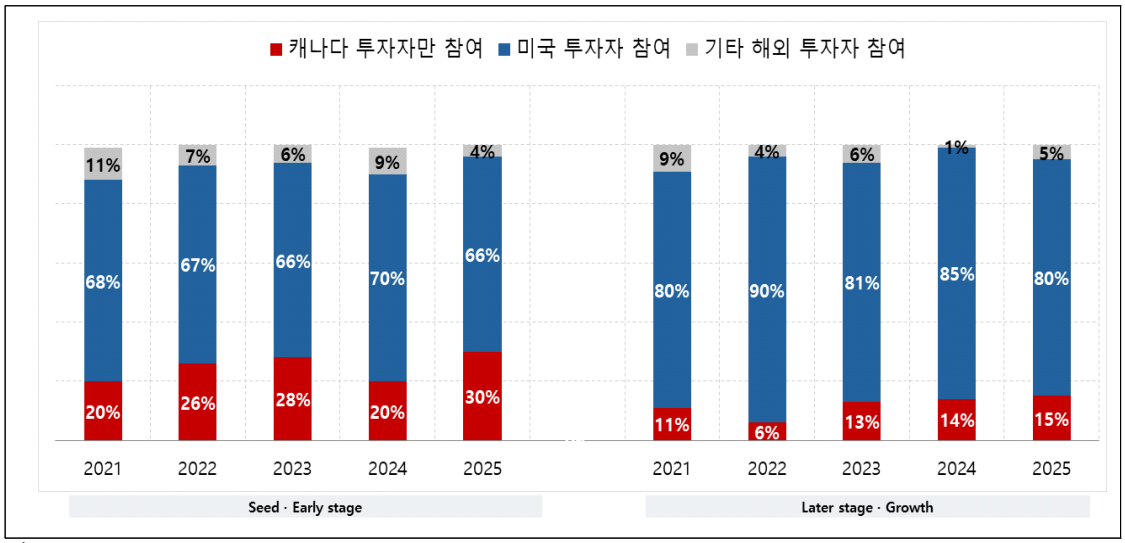
❑ 후기·성장단계의 높은 해외자본 의존에 대응하여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스케일업 자금공급을 강화하여 자국기업 보호

○ 캐나다 VC시장은 후기·성장 단계로 갈수록 해외투자자 참여가 확대되는 등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경제주권 관련 이슈 발생[39)]

- 기업의 자금수요가 커지는 후기·성장 단계로 갈수록 해외투자자가 참여한 투자 비중이 크게 상승

39) BDC는 후기 단계의 높은 해외자본 의존이 기업의 소유권과 의사결정권,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경제주권 문제로 지적

〈그림 7〉 캐나다 VC의 투자단계별 투자자 구성



자료 : BDC(2026a)

○ BDC Capital[40]은 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41]하여 첨단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이 캐나다 내에서 성장하도록 지원

- ❶(Growth Venture Fund) 후기 기술기업에는 기존 공동투자에서 직접투자까지 투자방식을 확대하여 사업확장에 필요한 대규모 후속자금을 공급
- ❷(Growth Equity Partners) 중견 성장기업에는 소수지분 방식으로 투자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확장과 캐나다 내 지속 성장을 지원

❑ 딥테크 기업의 성장과정에 맞춰 펀드 운용기간을 확대하고 후속투자를 연계하여 초장기 인내자본을 공급

○ BDC는 딥테크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유사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지만, 성장 단계로 갈수록 자금조달 격차가 확대되는 점에 주목

- 딥테크는 기술개발과 제품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일반 VC펀드의 운용기간은 10년 수준으로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투자금 회수 부담 발생

40) BDC Capital은 BDC가 100% 소유한 투자전문 자회사로, 벤처캐피탈과 직접투자 등을 담당

41) ❶Growth Venture Fund는 '25년 5억캐나다달러의 추가 재원을 배정받아 기존 공동투자 중심에서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확대, ❷Growth Equity Partners는 캐나다 중견기업에 3~45백만캐나다달러를 투자하되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여 경영권을 유지

○ BDC Capital은 제품개발과 사업확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딥테크 기업의 특징에 맞게 장기간 투자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운용 기간을 확대
- '21년 2억캐나다달러 규모 「Deep Tech Venture Fund」를 조성하여 Seed·Series A 단계부터 투자하고, 운용 기간을 12년(최대 4년 연장)으로 설정하여 초기투자 이후에도 후속 투자라운드에 참여

6. 일본정책투자은행(DBJ, Development Bank of Japan)

❑ 기존의 장기대출에서 사업위험 및 자금수요에 따라 메자닌, 지분투자 등 자본성 자금까지 지원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강화

○ DBJ는 과거 장기융자 중심의 기관이었으나, '08년에 투자기능을 본격화하였으며, '15년에는 특정투자업무[42] 도입을 통해 정책적 위험자금 공급 강화
- '25년 DBJ법 개정을 통해 특정투자업무가 첨단전략산업을 상시 지원하도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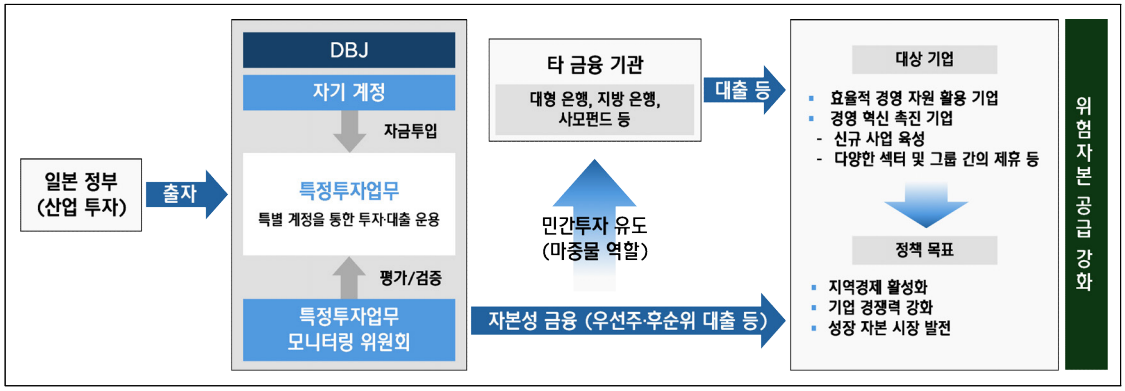
○ 2026-2030 중기경영계획 수립시에는 '투융자 복합금융의 심화'를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5개년간 지분투자·메자닌 방식으로 3조엔 공급 계획 발표

❑ 정부재원과 자체자금을 활용한 특정투자업무를 통해 위험자본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의 투융자 참여를 유도

○ 정부 산업투자자금과 DBJ 자체자금을 활용해 자본성 금융을 공급하고,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부담
- 프로그램 도입 이후 '26.3월말까지 1.56조엔의 투·융자를 결정하였으며 약 10.8조엔의 민간자금을 유도
- 생성형 AI 데이터센터[43] 구축 사업에 민간과 공동출자하고, FICT[44] 인수에는 후순위대출을 공급하는 등 사업특성에 따라 민간자본과 연계

42) 일본의 성장자본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의 위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으로, '15년 DBJ법 개정으로 도입
43) 주식회사 하이레조가 추진하는 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44) 반도체 관련 고다층, 고밀도 기판 등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으로, '25년 MBK Partners 주도 컨소시엄의 FICT 인수에 DBJ가 후순위대출 제공

〈그림 8〉 특정투자업무 운영체계



자료 : DBJ(2025b)

❑ 스타트업·GX·공급망 등으로 중점분야를 구체화하고, 장기 위험자본 공급기반 강화

○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맞춰 특정투자업무 내 전용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분야별 투자수요에 맞는 자본성 자금 공급 확대

〈표 11〉 특정투자업무 관련 전용펀드

(단위 : 억엔)

펀드	설립시기	목적	사례	실적
DBJ Startups and Innovation Fund	'20.3월	▸ 산업 혁신 촉진 및 스타트업 창출·육성	▸ WOTA(물 재사용 기술기업)의 분산형 물순환 시스템 사업 성장 지원	703 (75건)
Green Innovation Fund	'21.2월	▸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 e-Mobility Power(EV 충전 인프라 운영기업)의 EV 충전 네트워크 구축 지원	1,066 (19건)
Supply Chain and Infrastructure Fund	'24.2월	▸ 핵심물자 공급능력 강화 및 인프라 보강·확충	▸ 하이레조 카가와(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업)의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인프라 확충 지원	1,205 (9건)

자료 : DBJ(2025b)

○ GX·딥테크 등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기간이 긴 분야의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특정투자업무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투자기반 확충

- '25년 DBJ법 개정으로 투자결정 및 정부출자 기한을 '31년 3월까지로 연장

Ⅲ. 결론 및 시사점

❑ 정책금융 수요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 정책금융기관은 투자기능 확대, 민간자본 유도 플랫폼 설계, 성장단계별 자금공백 해소 등 자금공급 방식 개선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들은 첨단전략산업 자금수요 대응을 위해 지분투자·메자닌 등을 조합한 투융자 복합금융체계 형성

- 대부분 대출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Bpifrance와 BBB는 간접투자 위주의 투자방식에서 직접투자 및 직접 펀드 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표 12〉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 방식 변화 내용 요약

정책금융기관	기존 방식	변화의 핵심	대표 프로그램
EIB	▸ 인프라 장기대출 중심 ▸ 자회사와의 역할 분담 ▸ 직접공급 위주	▸ 전략산업 지원 ▸ 전주기 금융지원 체계 ▸ 민간자본 유도 확대	▸ TechEU ▸ InvestEU ▸ ETCI
KfW	▸ 거래은행을 통한 온렌딩 ▸ VC펀드 출자	▸ 자금공급 영역 확대 ▸ 공급수단 다변화	▸ FOAK, ▸ Scale-up Direct
Bpifrance	▸ 기업의 금융접근성 보완 ▸ 기능 분산 ▸ 자기자금 공급 위주	▸ 산업정책 집행기관 ▸ 원스톱 지원체계 ▸ 민간자본 유도 확대	▸ France 2030 ▸ Plan Deeptech ▸ Bpifrance Entreprises
BBB	▸ 중소기업 대출시장 보완 ▸ 도매형 정책금융 ▸ 비대칭 수익구조	▸ 산업정책 집행기관 ▸ 직접투자 확대 ▸ 동일위험·동일수익 조건	▸ BPC ▸ Future Fund:Breakthrough ▸ BGP
BDC	▸ 직접공급 위주 ▸ 초기기업 위주 ▸ 중소기업 대출 위주	▸ 민간자본 유도 확대 ▸ 스케일업 투자 확대 ▸ 초장기투자 확대	▸ VCCI/Growth VCCI ▸ Growth Venture Fund ▸ Deep Tech Venture Fund
DBJ	▸ 장기대출 위주 ▸ 직접공급 위주 ▸ 일반기업 지원	▸ 투융자 복합금융 강화 ▸ 민간자본 유도 확대 ▸ 중점분야 구체화, 장기 위험자본 공급기반 강화	▸ 특정투자업무

〈참고〉 **기관별 대출 및 지분투자 잔액 변화**

❑ 주요 정책금융기관은 대출 중심의 자금공급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분투자 등 위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며 금융수단을 다변화하는 추세

○ EIB·KfW·BDC·DBJ 등은 총자산의 약 70~90%를 대출로 운용하는 등 대출이 주요 자금공급 수단인 반면, BBB는 지분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20~'25년 대부분 기관에서 지분투자 증가율이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등 대출 중심의 자금공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위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기관별 대출 및 지분투자 잔액 변화

(단위: %)

기관명 (단위)	총자산 규모		대출/총자산		지분투자/총자산		'20~'25년 CAGR	
	'20	'25	'20	'25	'20	'25	대출	지분투자
EIB (십억유로)	556.1	554.4	80.2	82.9	1.6	2.4	0.6	8.7
KfW (십억유로)	546.4	540.7	79.5	89.3	0.6	1.0	2.1	12.4
Bpifrance (십억유로)	94.3	106.3	48.7	49.5	21.0	25.6	2.8	6.6
BBB (십억파운드)	2.6	6.0	17.5	9.4	45.5	68.9	4.1	28.1
BDC (십억캐나다달러)	33.1	50.5	82.3	80.7	5.2	9.7	8.4	23.2
DBJ (조엔)	17.7	21.6	70.2	68.7	8.2	9.7	3.6	7.6

주 : BBB, BDC, DBJ의 각 회계연도는 3월 말 기준
자료 : EIB(2021, 2026a), KfW(2021, 2026c), Bpifrance(2021, 2022a, 2026a·b), BBB(2025g, 2026b), BDC(2020, 2025), DBJ(2020, 2025a)

○ 또한, 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은 사업화 및 손익분기점 달성에 장시간 소요되므로 주요국 정책금융기관은 인내자본 공급 확대
- KfW 및 BDC의 경우 단기 성과 및 회수에 급급한 민간금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회수기간이 장기인 첨단전략산업 관련 펀드 마련
- BBB의 경우 자회사(BPC, British Patient Capital)를 통해 25억 파운드 규모의 인내자본을 VC펀드 등에 투입

○ 한정된 공공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럽 및 캐나다의 주요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자본 유도
- KfW·BDC 등은 차등수익구조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도하고 있으나, BBB는 성장단계별로 수익·위험구조를 다르게 적용

○ 스케일업 투자 등 벤처시장에서 미국·이스라엘과의 격차가 큰 주요국들은 성장단계별 자금공백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 특히, EIB와 Bpifrance의 경우 다양한 지원수단이 성장단계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 고도화

❑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자본 유도 확대 등으로 재원 다변화 추진 지속 필요

○ 유럽 및 캐나다 정책금융기관 사례에서 보듯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연기금·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자금을 위험자본으로 유도하는 금융구조 설계 필요
- 정부 정책펀드 설계시 공공 부문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보수적인 금융자본을 고위험 첨단 기술 분야로 유도
- 다만, 공공 부문의 손실우선부담 등이 민간의 위험선별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성장단계별로 수익·위험 구조 차별화 고려

○ Bpifrance 사례와 같이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VC 투자 등에 활용하여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신규 VC투자는 개인투자자에게 위험이 큰 편이므로, 투자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기존 펀드 지분을 위주로 개인투자자에게 매도하는 형식

❑ 기업의 성장경로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플랫폼 필요

○ 최근 정책금융의 변화는 기업 성장경로상 필요한 자금과 지원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벤처생태계 플랫폼 기능 확대로 진행
- 특히, Bpifrance는 연구실 기술발굴부터 양산화까지의 모든 성장경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 대출·보증, 투자 등 모든 지원수단을 한 기관에 통합

○ 우리나라도 정부, R&D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플랫폼을 조성하여 보조금, 대출·보증, 투자 등 연계 필요
-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정보가 후속 성장단계로 승계되어 반복적인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이력을 관리하는 플랫폼 설계
- 첨단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을 인증하는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대출·보증, 투자 등 다양한 자금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가능

❑ 또한, 효과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장기 인내자본 공급기능 강화 필요

○ ’26년 한국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등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국부펀드 및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도입을 발표
- ’26년중 8,800억원 규모로 차세대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최대 16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 계획

○ 두 펀드 모두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재원, 펀드만기, 향후 인내자본 수요 등 감안시, 영구적 인내자본 공급자로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
- 초기투자 이후 사업화·스케일업까지 연속적인 후속투자가 가능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중요
- 딥테크 전문 심사인력 확보, 기술평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성 극대화도 필요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한빛 외(2025), “주요국의 첨단산업 지원프로그램 금융구조 분석”(산은조사월보 2025년 9월호)

산업통상부(2025),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앞당긴다”(보도자료)

[영문자료]

BBB(2018), “£2.5bn British Patient Capital Programme launched to enable long-term investment in innovative companies across the UK”(보도자료)

____(2020), “Future Fund – Reservation Notice”

____(2021), “Future Fund: Breakthrough Now Open for Investor Applications”(보도자료)

____(2024), “Future Fund: Breakthrough is successfully increasing later stage capital to deeptech and life science companies, finds assessment”(보도자료)

____(2025a), “Five-year Strategic Plan”

____(2025b), “British Business Bank commits £6.6bn to back innovation as part the UK’s modern Industrial Strategy and to unlock potential for entrepreneurs across the UK”(보도자료)

____(2025c), “British Business Bank co-invests £250 million directly in UK scale ups“(보도자료)

____(2025d), “British Business Bank’s third-party arm BBB Investment Services receives approval to provide investment services to clients in first step towards British Growth Partnership launch“(보도자료)

____(2025e), “2025 ECF Draft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____(2025f), “BPC Core Programme Request for Proposals“

____(2025g),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5“

____(2026a), “Three UK pension funds invest into UK venture capital through British Business Bank“(보도자료)

____(2026b),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6“

BDC(2020), “2020 Annual Report“
BDC(2021), “Why we launched Canada‘s largest VC fund dedicated entirely to deep tech“(보도자료)
____(2025), “2025 Annual Report”
____(2026a), “Canada’s Venture Capital Landscape 2026”
___(2026b), “Canada must scale what it creates: BDC’s VC Landscape report warns VC gaps now a sovereignty issue”
DBJ(2020), “DBJ Group Integrated Report 2020”
____(2025a), “DBJ Group Integrated Report 2025”
EIB(2021), "Financial Report 2020"
___(2023), "Launch of New Fund of Funds to Support European Tech Champions“ (보도자료)
___(2024a), “EIB Group 2024-2027 Strategic Roadmap”
___(2024b), “EIB Product Catalogue”
___(2025a), "EIB Group Operational Plan 2025–2027"
___(2025b), "Europe’s innovative companies get boost as EIB Group launches TechEU Platform to simplify financing"(보도자료)
___(2026a), "Financial Report 2025"
___(2026b), “EIB Group Contribution to InvestEU 2021-mid 2025 : An independent evaluation”
___(2026c), "Investment Report 2025/26: Capitalising on Europe’s Strengths"
EIF(2026), "Europe launches €80 billion investment alliance to scale up tech leaders"(보도자료)
IMF(2024), “Stepping Up Venture Capital to Finance Innovation in Europe”
ISED(2017), “Designing the Venture Capital Catalyst Initiative 2017”
_____(2022), “Designing the renewed Venture Capital Catalyst Initiative 2022”
_____(2026), “Venture and Growth Capital Catalyst Initiative(Growth VCCI)”
KfW(2025a), “VC investments remained strong in a demanding market environment“(보도자료)
____(2025b), “WIN Initiative, Growth and Innovation Capital for Germany”
____(2026a), “Strong first half of the year“(보도자료)

McKinsey(2020), “Semiconductor design and manufacturing: Achieving leading-edge capabilities”
OECD(2025), “Entrepreneurial Ecosystem Diagnostics”
_____(2026), “Venture Capital Investments(Market Statistics)”, OECD Data Explorer(2026년 8월 20일 조회)
World Bank(2025), “Good Practices for National Development Banks”

[영어 외 자료]

프랑스 국민의회(2025), “Annexe a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6 – Rapport relatif aux liens financiers entre l’État et le Groupe Bpifrance”
프랑스 예산국(2022), “France 2030: Start-ups industrielles et deep tech”
_____(2024a), “PLF 2025 – Projet annuel de performances: Investir pour la France de 2030, Programme 424 – Financement des investissements stratégiques”
_____(2024b), “PLF 2025 – Projet annuel de performances: Mission ‘Investir pour la France de 2030’, Programme 425 – Financement structurel des écosystèmes d’innovation”
Bpifrance(2019), “Génération Deeptech : Bpifrance présente son Plan Deeptech, accompagné d’un référentiel dédié, pour démultiplier ses actions de soutien à l’innovation de rupture en France”(보도자료)
_____(2020), “Bruno Le Maire et Bpifrance annoncent le lancement du fonds « Bpifrance Entreprises 1» qui permet aux particuliers d’investir dans les entreprises françaises”(보도자료)
_____(2021), “Rapport Annuel EPIC Bpifrance 2020”
_____(2022a), “Presentation to Debt Investors”
_____(2022b), “Bpifrance renforce l’accès à l’investissement des particuliers dans les entreprises françaises non cotées en lançant le fonds Bpifrance Entreprises 2, doté de 100 millions d’euros avec un ticket d’entrée abaissé à 3000 euros”(보도자료)

_____(2023), “Bpifrance renforce l’accès à l’investissement des particuliers dans les entreprises françaises non cotées, en lançant "Bpifrance Entreprises Avenir 1" : premier fonds d’investissement permettant aux particuliers d’investir, dès 1000 euros, aux côtés de Bpifrance”(보도자료)
_____(2024), “Bpifrance poursuit son action en faveur de l’accès des particuliers à l’investissement dans les entreprises non cotées et lance «Bpifrance entreprises 3[1]», 4e fonds de sa gamme retail, avec un ticket d’entrée abaissé à 500 €”(보도자료)
_____(2025), “Bpifrance lance le fonds « Bpifrance Défense », permettant aux particuliers d’investir dans des entreprises principalement non cotées du secteur de la défense et de la souveraineté technologique”(보도자료)
_____(2026a), “Rapport Annuel EPIC Bpifrance 2025”
_____(2026b), “Debt Investors Presentation”
e-Gov(2007), “株式會社日本政策投資銀行法（平成十九年法律第八十五号）”
DBJ(2021), "(株)e-Mobility Powerへの出資について－「グリーン投資促進ファンド」第一号案件として出資決定－" (보도자료)
____(2022), “WOTA（株）に對する出資實行について－DBJスタートアップ・イノベーションファンドによる第一号案件－”(보도자료)
____(2024), “（株）ハイレゾ香川への出資契約締結について－「特定投資業務」を活用し、生成AI向けデータセンター設立を支援－” (보도자료)
____(2025b), “特定投資業務レポート 2025”
____(2026), “DBJグループ 中期経營計畫 [2026－2030]”
KfW(2021), “Finanzbericht 2020”
____(2024), “Zukunftsfonds-Statusbericht 2024”
____(2025c), “Deutschlandfonds Faktenblatt”
____(2026b), “ERP-Förderkredit Digitalisierung mit Haftungsfreistellungt”
____(2026c), “Finanzbericht 2025”

[인터넷 자료]

https://presse.bpifrance.fr/letat-renforce-son-action-en-faveur-de-la-deeptech-et-confie-a-bpifrance-de-nouveaux-moyens-pour-faciliter-lemergence-de-projets-de-rupture-a-fort-potentiel/?lang=fra(조회일:2026.8.28.)

https://www.british-business-bank.co.uk/finance-options/equity-finance/future-fund-breakthrough/frequently-asked-questions(조회일:2026.8.28.)
https://www.dtcf.de/about-us(조회일:2026.9.8.)
https://www.kfw.de/inlandsfoerderung/Unternehmen/Innovation-und-Digitalisierung/Digitalisierung/(조회일:2026.9.8.)
https://www.dbj.jp/en/service/special/(조회일:2026.9.14)
https://www.eib.org/en/projects/topics/innovation-digital-and-human-capital/techeu/index(조회일:2026.9.14)
https://investeu.europa.eu/investeu-programme_en(조회일:2026.9.14)
https://www.eib.org/en/publications/online/all/eib-group-activity-report-2025(조회일:2026.9.14)
https://www.eif.org/flagship-initiatives/european-tech-champions-initiative/overview(조회일:2026.9.14)
https://www.dbj.jp/en/company/law.html(조회일:2026.9.14)